OCT 6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15 1981년9월10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September 10,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골퍼 베스트10 밝혀져

1위에 박영철 평균 81

수퍼10골프대회 성료, 53명참가

◇금년도 넘버원 수퍼·골퍼로 선정된 박영철 부총영사.

금년도 한인골퍼들의 베스트10을 가리는 81년도수퍼10골프대회에서 박영철 토론토 부총영사가 162(77-85)점 평균81점으로 종합1위를 차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토론토 인근 약650명(협회추산)의 골퍼들중 그동안 각종대회에서 10등이내에 들은 골퍼들에게만 참가자격을 준 이대회에는 70여명의 자격자중 53명이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여성 자격자는 한명도 없었다

지난 6, 7일 볼튼 소재 그래이글 골프장에서 열린 동대회에는 각골퍼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5시간정도에 끝닌코스가 약1시간반정도 늦어져 7시간40분까지 끄는 대접전을벌였다

대회첫날인 6일 77점의 호성적을 보인 박 부총영사는 둘쨋날에는 궂은 날씨 영향으로 85점을 쳤으나 2등 168점과의 점수차는 6점으로 벌여 여유있게 우승했다

2등에는 원장호 고광남 박노욱씨가 동률168점으로 트로피를 받았고, 3등에 김진기(169) 4등에 정길수 이기훈(170) 5등에 윤여경 곽창수(171) 6등에김창갑(175)의 10명으로 베스트 10이 가려졌다 과거 한인대회에서는 동점일 경우 피 버디등을 따져 등수를 매겼으나 이번에는 동점자는 모두 같은 등수를 주었다

대회가 열린 이글골프장은 총18홀의 코스가 6.736야드에 이르는 닌코스로보통 골프장(6천여 야드) 보다 약700야드가 길다

런던교포 김택수씨와 골프협회 정정흥회장은 둘째날에는 골프카를 타고 다니는 마샬로서 골퍼들의경기진행을 감독했다

핸디캡을 뺀 넷부문에서는 1등에 이창복(144) 2등 곽창수(147) 3등 김현문(147)씨였다

최장타상(Longest Drive) 부문에서는 고광남씨가265야드로 1등을 차지했고, 니어리스트(Nearest) 부문에서는 강경하씨가 3미트로 각각 트로피를 차지했다

대회 2일째는 이강익 씨가 83점으로 「데일리」1 위를 차지했다

작년도 이대회 우승을 비롯 각종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오석원 재원 형제는 중년골퍼들에게 양보(?) 이번대회에는 불참했다

이번대회에 많은 트로피는 몰수백주회 사가 후원했고, 동회사 프랭크·몽고메리영업부장이 참석해 대회를 지켜봤다

그러나 이대회에서도 몇몇 골퍼들의 비신사적 행위가 있었다고 일부 골퍼는 불평했다

이에 대해 정회장은 "그런 비신사적 행위가 있으면 같은 조의 골퍼들이 즉각 항의, 시정했어야 한다"면서 한인골퍼들의 매너향상에 대해 회원각자가 자각 내지 시정하는 정신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골퍼는 한인사회에 골프가 붐을 일으켜 대회수가 너무 많다면서 트로피나 상을 위한 시합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골프붐이 잘못되면 가정불화등의 사회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면서 부부간 같이 즐기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발전하기를 요망했다

골프협회는 오는 19일일반골퍼를 위한 연례골프대회를 개최한다

81년도 수퍼10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스트10

		1일	2일	종합
1등	박영철	77	85	162
2등	원장호	81	87	168
〃	고광남	82	86	168
〃	박노욱	83	85	168
3등	김진기	80	89	169
4등	정길수	86	84	170
4등	이기훈	84	86	170
5등	윤여경	86	85	171
〃	곽창수	87	84	171
6등	김창갑	85	90	175

◇최장타
고 광 남 265야드
◇니어리스트
강 경 하 3미트
◇네트(핸디캡 제외)
1등 이창복 144
2등 곽창수 147
3등 김현모 147

◇동점 2위 골퍼들, 왼쪽부터 박노욱, 원장호, 고광남.

◇넷 1위 이창복

◇정정흥 골프협회장

이덕희 5회전 탈락

체코의 한나에게 석패

(뉴욕)U·S오픈테니스대회에서도 맹활약, 16명이겨루는 4회전까지 진출한한국 유일의 여자프로테니스선수 이덕희양은 프랑스오픈 우승자이며 윔블든준우승자인 체코의 한나·맨들리코바(5번시드)에게 6:1, 6:0으로 패배 탈락했다.

지난번 캐나다오픈 에서 루마니아 강자 세계9위의 루치시를 물리치고 3회전에 올랐던 이덕희는 이번에도 3회전에서 루치시 를 만나 6:1, 4:6, 7:5로 다시 물리쳐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에서 이덕희는 미국, 호주, 루마니아의 강자들을 누르고 4회전까지 진출, 금년말 프로선수 랭킹 조정에서 20위 권으로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선수는 오는11월 한국대표팀과 합류「페데레이션 컵」쟁탈 국가대항 세계여자테니스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첫 한인 "꾸르실료"

6만여건의 기도선물 속에 성료

토론토 한인천주교회 (신부, 고종[illegible]) [illegible] 사회 최초로 가톨릭신자들의 특수묵상회 "꾸르실료(Cursillo)"를 실시했다

김태봉씨를 회장 김득권 신부를 지도신부로 나원균·최준홍 신부 문태준 전국협의회장등 12명의 지도강사를 서울로부터 초청 지난 4~7일(3박4일) 킹스톤로드의 성 아우구스틴신학교에서 실시된 이 묵상회에는 토론토에서 35명 몬트리얼에서 4명의 가톨릭신자가 수련자로 참가했다

토론토성당측에서는 고종옥 신부를 비롯, 곽준구·허영식·김지일·권장성씨의 5명 꾸르실리스따(꾸르실료 수료자)들이 임원으로 봉사했다 묵상회는 신앙생활의 가톨릭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교리·신학·사회봉사 활동등 15개의 강의가 있었다

꾸르실료는 1940년대에 신앙쇄신과 행동화로 그리스도를 땅위에 심고 인류[illegible]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꾸르실료는 토론토대교구 제119차로 실시된 것이며 이 묵상회 성공을 위해 캐나다내는 물론 한국 미국 남미 멀리 유럽 여러 나라에서 특별지원 빨랑까(Pallanca=영적선물) 6만6천8백건을 보내왔다

특히 수료일인 7일밤에는 캐네디안 성직자·신자등 300명이 악기를 들고 현장에 찾아와 꾸르실료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인종을 초월해서 대단원을 장식해 주었다

캐나다 준결승 진출

스웨덴에 고전, 부상선수 많아

7일 몬트리얼에서 속개된 「캐나다컵」세계하키대회에서 팀캐나다는 스웨덴에게 4-3으로 힘겨웁게 승리 3승1무를 기록했다

1피리어드 시작 6분동안 팀캐나다는 2골을 쉽게넣어 경기의 기선을 잡았으나 그후 적극적인 공격을 펴지못하고 스웨덴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고전을 면치못했다

CANADA CUP

3피리어드 말에 스웨덴의 앙더스칼러의 역습등으로 스웨덴은 세차례나 동점을 만들 기회가 있었으나 캐나다 골리 마이크·리웃의 선방으로 성공시키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캐나다는 이 경기에서 레프트·윙 질·피렛트의 발목뼈가 부러지고 센터 웨인·그레츠키가 왼쪽팔과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는등 캐나다팀의 전력에 큰 손실을 가져와 9일(수)있을 소련과의 대전과 결승 토너멘트를 앞둔 캐나다팀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그레츠키, 라플러, 피렛트의 라인으로 이어지는 공격팀은 팀캐나다의 중요라인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가진 4경기에서 25점을 올리는 수훈을 세웠다

미국과 체코의 대전에서 미국은 예상을 뒤엎고 6-2의 큰 점수차로 체코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소련은 약체 핀랜드를 6:1로 가볍게 누르고 캐나다와 동률 1위가 되었다.

한편 지난5일 위니펙 에서 있은 체코와 캐나다의 대전에서는 치열한 공방전끝에 4:4무승부였다.

현재까지 캐나다, 소련, 미국의 3팀이 결선토나멘트(Play off)진출이 확정됐고 나머지 한팀을 놓고 체코와 스웨덴이 9일 오타와에서 대결했다.

각 팀 전적은 다음과 같다.

1위 캐나다 3승1무
〃 소 련 3승1무
3위 미 국 2승2패
4위 체 코 1승2무1패
5위 스웨덴 1승3패
6위 핀랜드 4패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북 한 방 문

(서울5일=연합)인도네시아 모 타·쿠사마트마드자 외무장관은 평양측 초청으로 북한을 [illegible] 「내외통신」이 5일 보도했다.

3일 이 평양방송에 의하면 모흐타 장관은 인도, 네팔등 아시아 여러나라 방문길에 북한도 방문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남, 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갖고있다.

대우실업 공개모집 기혼여성 취업가능

(서울5일=연합)한국의 결혼한 여성들은 직업갖기를 원하고 있다. 4일 마감된 대우실업의 30명사원모집에기혼여성들이약 650명이 응모해 약 22:1의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대우실업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처음있는 대규모의 기혼여성 신입사원모집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연령은 30세로 제한했으며,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B)497-3800
(R)284-9052

MUTUAL LIFE

금번 Mutual Life에서 일하게 된 박시조입니다
Mutual Life보험회사는 카나다에서 individual life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보험가입자를 흡수한 상호보험회사로서 11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카나다자본의 굴지의 대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Mutual Life는 바로 보험가입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 모두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으며 상호보험만이 갖는 특수한 장점들은 교민여러분의 미래의 설계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박 시 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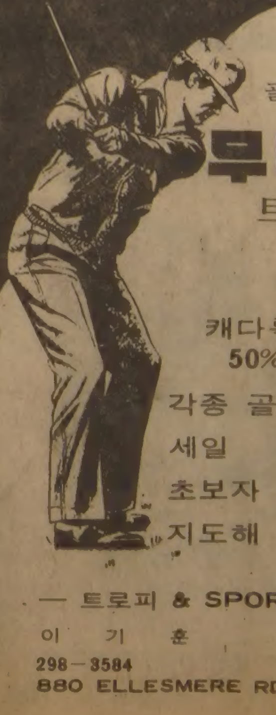
취급보험 :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은퇴보험 ● 구룹보험
● BUSINESS LIFE보험
● R. R. S. P. (세금공제 은퇴저축)
● INCOME EVERAGING ANNUITY

주 소 :
251 CONSMER RD.
(세퍼드×빅토리아 파)
전 화 :
494-3800(B), 481-8835(R)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6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캐나다달러 강세
오일가 인상 영향

알버타주와 연방정부 간의 에너지 협상체결로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몰아왔으나 관측자들은 아직도 캐나다달러의 약점이 완전 제거되지는 않았다고 경고한다.

2자리 숫자대로 뛰어오른 인플레율과 에너지협상의 효과는 달러의 가치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일 북미시장에서 거래된 캐나다달러는 대미달러당 83·58센트로 하루사이에 0·35센트가 올랐다.

지난7월 81·34센트까지 내려가 30년대「대공황」이래 최악의 수준에 빠졌던 캐나다달러가 계속 호전되고는 있으나 미국의 긴축금융정책이 계속되는한 금리인상 압박이 재거될 수 없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양국 경제상황을 검토할때 83센트대가 가장적절한 선이라고 말한다.

캐나다달러의 또하나 약점은 트루도정부의「국가에너지 계획」(NEP)등 투자정책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불리, 많은 자본금이 캐나다에서 유출된다는 것이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 캐나다 경제가 쥐고있는 몇가지 장점은있다.

우선 이번 알버타와 연방정부간의 에너지 협상안 타결로 에너지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금후 많은 외국자본의 투자를유도할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됐다.

"달러의 강세로 비록 단기간이긴 하나 금리 하락이 확실시된다"고 토론토 도미니온 은행의 경제학자 데이비드·슬로안(David Sloan)씨는 이자율의 하락을 예고했다.

그러나 단기간의 이자율하락은 장기적으로 볼때인플레의 영향으로 이자율상승에 귀결된다.

"신혼의 단꿈"
다리위에서 지다

미국과 캐나다의 보수적인 이민법은 한쌍 신혼부부의 여행을 망가뜨렸다.

미국시민 해리·곤잘레스씨는 신혼의 꿈이 산산히 깨어진채 신부를 해밀톤불법체류자 수용소에 맡겨둔채 쓸쓸히 뉴욕 아파트로 돌아와야 했다.

미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엘리자베스양은 미국시민 해리와 5일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후 나이아가라 폭포로 신혼여행을 계획, 밤새도록 차를달려 버팔로에 도착했다.

피스·브릿지를 건너캐나다에서 호텔을 잡으려던이 신혼부부는 빈방을 구할수 없어 5분만에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미국쪽의 이민관은 신부의 미국 시민권이 없으므로 캐나다쪽이민관에 연락, 해밀톤수용소에 감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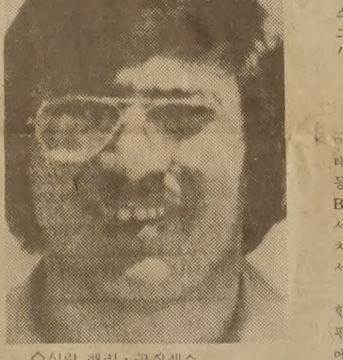
곤잘레스의 변호사 피터·허쉬씨는 곤잘레스씨가결혼식을 올린후 신부의 친족관계로인한 영주권 청원서를 바로 제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곤잘레스씨는 그들이 캐나다로 갈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면서 "나는 월남전에도 참전, 훈장을 받았으나 국가에게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미국이민관리의 보수성을 비난했다.

변호사 허쉬씨는 곤잘레스부인의 경우 3가지 방법으로 처리될수 있다고 했다. (1)토론토 미국영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는방법, (2)곤잘레스가 토론토로 가서 신부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러 달이 걸리므로 신부가 추방될수 있다. (3)나이아가라쪽 이민관이 특혜를 주어 신부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방법등이 있다.

신부 엘리자베스는 남미 콜롬비아 출신으로 6년전 맥시코 국경을통해 밀입국했다한다.

◇신부 엘리자베스·곤잘레스


◇신랑 해리·곤잘레스

김일성 세습체제
선전에 광분

(서울=연합)8일(화)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8월26~31일 비동맹국가이며 개발 도상국들의 농업과 식량증산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주관했다.

77개국과 12개 국제기구에서온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 회의의 목적은 김일성과 그의아들 김정일의 정치권력 세습후계공작을 비동맹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기위한 포석으로간주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가능한한많은 대표들의 참석을 종용한 북한당국은 박성철부주석, 이종옥 수상등 북한의 고위관리들을 개인적 으로 초청대상국에 보내 고위관리들의 초청을 적극 유도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오는 9일 북한정권 수립일을 기해 초청될 외국 언론인들에게 김일성 세습체제의 당위성을 크게 선전할 예정이다.

12일은 추석
선련사서 불공

한국불교회 선련사(토론토 46 Gwgnne Av.)는 음력8월보름 한가위(양력 12일)를 맞이 추석 불공의식을 봉행한다

13일(일) 11시에는 불전 흠공과 세분(동양인의 가족관념—그 사대적인 당위성을 불교의 입장에서진단)을 삼우스님의 주도로 선법하며 12시에 조상천도의식이 있다

하오1시 대중공양을 마지막으로 추석 법회를 마친다 삼우스님의 설법주제는「동양인의 가족관념」으로 그 사대적 당위성을 불교입장에서 진단한다 추석은 우리민족 고위의 명절이다

한국일보
533—2363

"문선명씨 부인 영주권조사 한국정부가 방해한일 없다"

【워싱턴】미국정부는 2일 통일교 교주 문선명씨의 부인에 대한 미 이민국의 수사를 한국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제임스 미나드 국무성 동남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뉴스위지가 그같은 보도를 한데 놀라울뿐이며 한국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간지 뉴스윅은 최근호에서 미 이민국은 문선명씨의 부인이 영주권 신청시 허위사실을 게재, 영주권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이를 방해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뉴스윅지는 만약 문선명씨 부인이 추방될 경우 문선명씨도 추방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문씨가 결혼형식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무성 아시아 태평양 담당 미나드 대변인은 또 문선명씨와 한국정부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있다는 뉴스윅지 보도에 대해 "아직 그러한 조짐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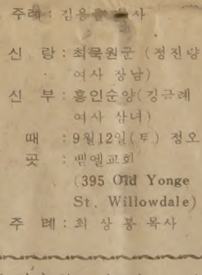
코치만씨
윤치과 인수

토론토의 치과의사 윤중태씨가 뱅쿠버로 이전한후 동병원을(Suite203 3101 Bloor w Tel 233—9454) 서양인 치과의사 마크·코치만씨가 인수 같은자리에서 성업중이다.

지난 8월부터 신장개업한 코치만씨는 그동안 우편파업등으로 한인 환자들에게 충분한 인사를 못드렸다면서 고객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한인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봉사, 한인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싶다고 말했다.

토론토 치과대학 출신의 코치만씨는 치아의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 계몽하고 있다.

「코치만치과병원」에는윤의사 밑에서 수련받던 달린양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새로 채용한 김양은 한인환자들을 위한 통역및 접수업무를 맡고있다.


◇ 코치만 의사

결혼축하

신랑 : 이준식군
신부 : 홍진명양
때 : 9월12일(토) 정오
곳 : 토론토제일한인장로교회
주례 : 김용[illegible]사

신 랑 : 최묵원군(정진량여사 장남)
신 부 : 홍인순양(김근례여사 삼녀)
때 : 9월12일(토) 정오
곳 : 벧엘교회 (395 Old Yonge St. Willowdale)
주 례 : 최 상 봉 목사

「상점경영의 묘미」… ⑤
새롭게 시도하라

소매상 경영연구소장 피터·태사

개인스토어 경영자는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바로 얼마전만 하더라도 낙농 제품이나 빵을 스토어(버라이어티·스토어) 에서 파는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지금은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

집 소유자나 아파트 거주자들이 지출하는 경비중 보수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오르는 인건비(일반적으로 수달러의 자재비에 비하여 인건비는 20달러 이상이다)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보수를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이들이 필요로하는 자재들은 전기퓨즈, 수도꼭지, 못, 글루, 페인트, 샌드·페이퍼등 기본적인 자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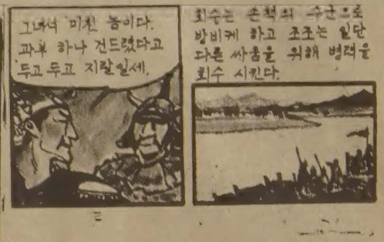
이런것을 감안할때 자재선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철물점처럼 복잡한 여러가지 자재들을 취급할 필요는 없다. 스토어 고객들은 그렇게 복잡한 재료들을 찾지 않는다. 될수있는대로 다목적용 재료와 못과 스크류가 포함된 팩키지를 갖다놓으면 좋을것이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보수나 공구의 사용법등에 대해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스토어 경영자에게사용법등을 물을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당신이파는 공구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가지면 고객들에게 호감을 줄수있다.

당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는 언제나 바뀌고 또 바뀌어야 한다. 30년전의공구들과 지금의 그것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때 마다 가격전쟁을 재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만약 소매업자와 공급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 계획하여 적합한물건을 만들고 적당한 가격을 설정하면 가격전쟁이필요없어 진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양심의 해방

1. 성경적 근거

1. 신앙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은 오늘날 교들에게는 다분히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모순되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는 즉시 모든 문제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식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자마자 주님 안에서 영이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갈등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하고 있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고 하셨는데, 진실로 주님 안에서 영, 곧 양심이 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읍니까? 마음에 고달픔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주님을 참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안에 자기의 것" 즉 죄나 죽음이나 기타 일체의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전보다 더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고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믿지 않고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아, 참으로 괴롭다. 안 믿으면 지옥갈 것 같고, 믿자니 힘이 들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상태의 마음은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오로지 어머니 안에 있읍니다. 자신을 알지 못해도 어머니의 것은 전부 자기의 것입니다. 자신은 어머니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스스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믿음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내 스스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이요, 양심의 평안입니다. 또 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한국 평신도복음선교회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모든 市中銀行 民營化방침

全대통령 民間主導 경제指向위해

올物價 20%…내년 14% 억제
電子공업 기술개발 집중지원

【龜尾=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5일낮 정부주도형의 經濟運用을 탈피하여 民間主導型경제를 지향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 장기적차원에서 市中銀行의 民營化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龜尾工團의 韓國電子通信株式會社강당에서 工團入住業體대표및 근로자등 1백50여명과 한시간동안 오찬을 함께하는자리에서 『오늘날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위해서는 과거와같은 정부主導型경제운용과 경제성장방식을 지양해야한다』고지적、『이를위한 방안의하나로 앞으로 市中銀行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民營化시킬 계획이며 시험적인 은행의 民營化가 성공을거두면 전 市中銀行을 民營化할방침』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정부는 금년말까지 물가를 20%로 억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도 物價安定에 적극협력 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정부는 올해에 물가를 20%선에서 잡고 82년에는 14%線으로 안정시킬 방침으로 있는데 이계획이 성공하면 우리 역사상 경제에 一大革新을 이룩하게되는것』이라고 말하고 83년부터는 물가를 10%線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정부의 이같은 물가안정대책은 석유값과 국제原資材、外國金利등의안정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몇년동안은 原資材가격등이 큰변동이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럴때 우리가 경제성장을이룩하여 先進國隊列에 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家電品 稅減免…가격自律化
龜尾貿易확대회의 商工部 電子산업 육성方案 報告

貿易확대會議 주재

全斗煥 대통령은 5일『電子공업은 우리의 산업與件상 가장 적절한 전략산업이므로 신제품 개발과 기술도입및개발에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龜尾공단안의 龜尾시 부녀복지회관 강당에서 무역진흥月例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전자산업진흥과 관련하여 특히 半導體산업육성에 중점을 둘방침』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정보를 교환、活用하고 과감하게 선진외국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앞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에 힘쓸때 정부는 최대한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기업이 中小기업의 部品을 구입할때 支拂기일이 너무긴 어음을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가급적 기일을 단축시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 원활해질수있도록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회의가 끝난뒤 공장새마을운동에 공이큰 南鮮物産 大邱공장장 정은채씨에게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수여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龜尾수출산업공단에 들러 崔泳鐵 이사장으로부터 工團현황을 보고받고 전시장에 진열된 半導體、컴퓨터、전자교환기등의 제품들을 살펴본뒤 한국전자통신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회의참석자및 공단근로자등 1백50여명과 오찬을같이했다。

이자리에서 徐錫俊 상공부장관으로부터 電子공업육성방안과 8월중 수출입동향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徐장관은 유형별로 분류、①가정용전자기기는 신규품목의개발로 수출주도형으로②반도체·컴퓨터등 산업용전자기기는 정부부문의 수요개발을 통해 수입대체형으로③전자부품은 자립형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徐장관은 특히 컴퓨터、반도체、전자교환기등 첨단전자산업을 80년대전략 산업으로 선정、이부문의 기술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86년까지 1천5백억원의 소요자금을 마련키위해 전자공업진흥기금을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徐장관은 마이크로컴퓨터、반도체는 정책지원에 우선을 두어 시작품 개발을 중점지원하고、컬러TV、전자교환기는 양산화 체제를 유도하며 흑백TV蓄電器등 쇠퇴기품목은 자동화를 촉진하고 해외투자를 장려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徐장관은 또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도 內需기반을 확충하여 시작품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하려면 무엇보다도 현행特別소비세율을 대폭인하하고 관세체계도 크게 고쳐야한다고주장했다。

徐장관은、세율조정방향에 대해 이미 사치품의 범주를 벗어나 대량보급된 흑백TV·카세트·컬러TV·냉장고등은 특별소비세(현행30~40%)를 없애거나 대폭인하하고 전자레인지、VTR、세탁기(40%)등 초기개발단계에 있거나 수출전략품목으로 지목된품목은 세율을 잠정인하하거나 시한부로 면제하였다가 일정수준의 내수기반이 마련된후 세금을 부과토록하며 제품보다 원자재에 더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관세율제도를 고쳐 원자재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로 매기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아울러 새모델개발과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가격관리를점차철폐、종류별·규격별로 가격을 자율화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徐장관은 또 국산화촉진을 위해 통신기기·사무용기기등 정부서 사용하는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을금지하고 국산을 사용토록하며 판매촉진을 위해 현행割賦판매제도를 장기신용할부판매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5차5개년계획기간중 3만8천4백명의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키로하고 그중 1만3천5백명은 해외연수시키겠다고 보고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4일 釜山影島區南港洞의 水害지구에들러 복구작업중인 주민들을 위로하고있다。

北傀불장난 올·내년이 고비
全대통령 "美機공격 戰爭준비마친 증거"

【大邱=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4일『北傀가 美정찰기를향해 미사일을 발사한것은 그들이 이미 전쟁준비를 마친증거』라고 지적、『올해와 내년이 북괴가 불장난을 저지를지도모를 가장 위험한 고비』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저녁 慶南北지방의 水害지역을 시찰한뒤 慶北道廳회의실에서 大邱市및 道內기관장을비롯、有志등 80여명과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분석은 군사·외교·정치경제면등 모든면을 검토한데서 나온결과』라고지적、『우리는 敵이 행동만하면 軍과 경찰이 즉각 이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北韓은 世襲체제에 대한 자체내의 불만과 경제·외교적인 어려움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최근 잇단 도발을 자행한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북괴의 어떠한 도발이 있다해도 이번의 태풍을 이겨낸 슬기같이 온국민이 합심해 노력하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大邱】 全斗煥 대통령은 5일상오7시 大邱시내에있는 慶北통계사무소와 전국광무원교육원을약 1시간동안에 걸쳐각각방문했다。

龜尾工團시찰

【龜尾=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5일하오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후 龜尾공업단지내 한국전자통신(사장 李春和)및 金星반도체(사장 安東烈)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소장 崔順達)를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약 1시간반동안에 걸친 이날시찰에서 各社대표로부터 간단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다음 工程별각 제품의 제조과정을 자세히살펴보고기능공들을격려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斗煥 대통령은 4·5일 이틀동안 第3사관학교 졸업식및 任官式、釜山·慶南의 水害지역시찰、무역진흥확대회의등을 주재하고 5일하오 歸京했다。

波자유勞組 全國大會개막
東歐圈서 처음 어제부터사흘간
紐帶강화·憲章修正討議

【그다니스크(폴란드) 4日AP綜合】 소련육·해군의 새로운 폴란드부근 기동훈련과 폴란드정부의 비상사태선포 위협속에서 약9백50만의 회원을 가진 폴란드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는 5일 폴란드 노동운동의 요람지인 공업도시 그다니스크에서 동구사상 최초의 자유노조대회를 가진다。

7일까지 3일간 1단계회의를 가진후 26일부터 10월3일까지 다시 2단계 회의를 가지는 이번노조대회는 폴란드공산당제1서기 카니아가 비상사태선포를 위협했을뿐아니라 소련육군과 해군이 폴란드인근지역과 발트해에서 새로운 기동훈련을 벌이고있어 그 분위기가 극도의 긴장감을 자아내고있다。

자유노조 소식통은 이번대회에서 노조의 관영보도매체 이용요구、공장노동자의 자율성신장및 각개별 자유노조간의 유대강화 문제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될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개별노조간의 단합문제가 이번 대회에서 강조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자유노조대회와 때를 같이하여 지엘로나·고라지방의 농민들과 비드고슈츠시의 공업노동자들이 파업과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어 폴란드당국의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게하고있다。

한편 카니아 공산당제1서기는 3일 당중앙위에서『우리의 적들이 감히 우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사회주의 수호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것』이라고말했다。

노조、國營방송取材禁止시켜
當局과協商 결렬돼

【그다니스크4日UPI綜合】 폴란드자유노조는 4일밤 국영TV및 라디오방송이 5일상오10시(한국시간오후5시) 그다니스크에서 열린 제1차 자유노조 전국대회를 취재방송하는것을 금지했다。

자유노조의 야누츠·키에비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노조소속 방송요원들의 전국대회취재참가문제를 둘러싼 당국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같이 취재불허조치를 취하게 됐다고밝히고『정부는 언론매체를 동원、자유노조가 라디오및TV취재를 허용하지 않고있는데대해 비난을 퍼붓고있다』고 주장했다。

키에비치는 또 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전국대회에서는 노조헌장수정문제와지난1년간의 자유 노조활동보고서채택문제등 2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F16機 8대 13일 한국引渡

【워싱턴4日=聯】 한국에인도될 48대의 미제F16 제트전투기중 1차분인 8대가오는13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것으로 4일 알려졌다。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 소식통들은 한국에 인도될 F16전투기 1차분8대가 일련의 기계점검을 받은뒤 13일 한국에 도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에 인도될F16기는 기존의 F4 팬텀전투기와 교체된다。

미국정부는 83년말까지 F4 팬텀전투기를 F16기로교체하고 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다。

F16기의 對韓 1차인도분 8대는 9일 유타주의힐공군기지를 출발、호놀룰루·괌·오끼나와 등지를 경유하여 4일후인 13일 한국에 도착한다。

이란 또 爆發사건
이번엔 檢察廳舍 큰被害있는듯

【테헤란5日AFP綜合】 알리·고두시 검찰총장이 집무하는 이란 검찰청건물에서 5일 상오 강력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란 경찰이 발표했다。

목격자들은 이 폭발이『매우 맹렬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발생후 병원 구급차들이 사건현장에 집결했으며 혁명수비대원들이 사건 현장일대를 차단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대변인은 고두시 검찰총장은 검찰청 폭발사고당시 청사내에 있었는데 다리에경상을입었다고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자신이 알고있기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폭발사건에 관한 첫보고들은 1~2명이 부상한것으로 전했다고 이대변인은 덧붙였다。

水害地에 國會조사반
3개常委간사 연석회의對策 논의

국회는 5일상오 內務·農水産·建設등 3개 상임위의 합동간사회의를 갖고 오는8일 열리는 3개상임위연석회의의 진행방법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8일의 연석회의에서 水害복구대책을 살피기위한 국회調査班 파견을 결의키로 대체적 의견을 모은 한편 各黨에 3명씩 모두 9명의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기로 했다。

丁議長 水害地시찰

【光州=聯】 丁來赫국회의장은 4일하오 전남에 내려와 태풍피해가 큰 谷城郡石谷面·竹谷面등을 돌아봤다。

이곳 출신인 丁의장은『예상보다 피해가 크다。 주민들이 힘을합쳐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는것을보고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 폭우로 寶城江유역 谷城郡이 큰피해를 입은것은 보성댐水門조절에 이상이 있었던것같다』며 당국에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民正후원회 懸板式

民正黨후원회는 5일 상오 서울시내 중구太平路1가62 成林빌딩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李源京장관과 民正黨의 尹碩淳사무차장등이 참석했다。

"恒久的 피해防止策마련을"
柳民韓총재 水害지역시찰

【木浦=聯】 柳致松民韓黨총재는 5일상오 光州의全南도청에서 水害상황을 보고받은데 이어 羅州、咸平、務安、木浦、靈岩、海南등지의 수해지역을 차례로 시찰、農耕地와 가옥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柳총재는 이날 全南道에서 보고를 받은뒤 『농민입장에서본 피해액과 道의피해조사액이 차이가나겠지만 가능한한 농민편에서 피해액을 算定해야 한다』면서『주기적으로 농작물피해가 있기때문에 항구적인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柳총재는 이자리에서 의원들이 갹출한 義捐金을 전달했다。 이날 柳총재의 水害시찰에는 高在淸총무、金珍培대변인、趙鍾浩의원과 全南출신의원들이 수행했다。

목숨으로 지킨 信仰遺品
오늘부터 가톨릭美術展등서 公開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1백5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인 서울교구사자료전시회(7~13일)와 가톨릭미술전(6~12일)이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나란히 열린다。

「서울대교구 1백50년」을 주제로 열리는 자료전시회는 교구설정을 전후한 역사적 사실을 한눈에 볼수있는 각종 자료와 사진이 공개되고 교회사 유적지 슬라이드상영과 천주가사의 전시장내 녹음방송등이 마련되고있다。

전시품목은 초기신앙인들이 목숨과 바꿀만큼 소중히 간직해 전해진 유물과 서지 10여점、사진 80여점이다。

특히 丙寅박해(서기1866년) 당시 순교를 직접목격했고 순교자들을 위해 귀중한 증언을 남긴 朴順集의 유품인 14처 畵本이 범통으로 제작된 처음으로 소개된다。

이 14처 범통은 한국 당가로 25㎝ 세로 45㎝크기로 한글과 한자 두가지 설명이 붙어있는데 가톨릭 전래 초기 北京에서 흘러들어 왔을것으로 추정된다。

社會漫評

稅金감면、學費감면、
糧穀대여、家屋수리비지원…

地平線

행상을 하는 72세의 노인 여자와 교제해온 노인이 농약을 마시고 죽은 일이 지난 7월에 있었다。 가족들이 살림차리는걸 반대해서 비관해왔다한다。 비슷한 사건이 8월에도 있었다。 83세의 할아버지가 홀아비신세를 비관한 끝에 농약을 먹고 죽은 것이다。 9년전에 부인을 여읜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그러니까 82세때 새장가를 들었지만 주정이 심해 할머니 신부가 달아났다한다。

▼미국의 존즈홉킨스대학 연구팀도 홀아비·홀어머니에게 재혼하라고 권하고있다。 홀아비는 유부남보다 사망률이 26%나 높고、특히 55세에서 64세사이에서는 자그마치 61%나높다한다。 과부는 그렇게 심하지않지만 유부녀보다 3·8% 사망률이 높다。 그래선지 일본 東京에서도 노인결혼상담소가 밀려오는 노인들때문에 붐비고있다는 소식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병가운데 외로움이야말로 큰 병이라고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말하고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사회에서는 이미 자식에 대한 기대가 빛을 잃어가고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지난 10년동안 전국의 가구수는 27%나 늘어 8천40만이 됐다。 그러나 한 가구에 살고있는 가족의 수는 거꾸로 3·11명에서 2·75명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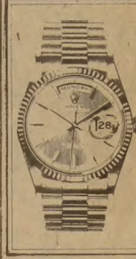
▼가구수는 늘고、식구수가 줄어든 것은 두가지 원인때문이다。 첫째는 노인들이 자식들과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둘째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될수있는 대로 갖지않는 경향때문이다。 전체 부부의 약절반이 아이를 데리고있지않다。 아예 낳지않았거나、또는 아이들이 커서 집을 나간 것이다。 10년전만해도 이런 가정은 43%였다한다。

▼「무자식 상팔자」풍조는 여러가지 새로운 생활풍속을 낳고있다。 양자를 데려다 기르는것도 그중의 하나다。 어차피 자식이란 기를때뿐이라면 양자로 데려온 아이를 기르는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식이란 기를때 뿐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풍조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늙어서 자식에 의지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단순한 결단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요즈음 미국에서는 귀여운 인형을 자식삼아 입양시키는 사람이 붐을 이루고있다한다(5일자 6면보도)。 어린이보다 기르기 쉬운 것이다。 인구폭발의 심각한 공포를 안고있는 후진국과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3년뒤면 4천만명이 넘을거라는 우리로서도 인구문제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정책과 세금、그리고 사회보장등을 인구정책에 맞게 뜯어고쳐야 할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 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14
은 : 온스당
US 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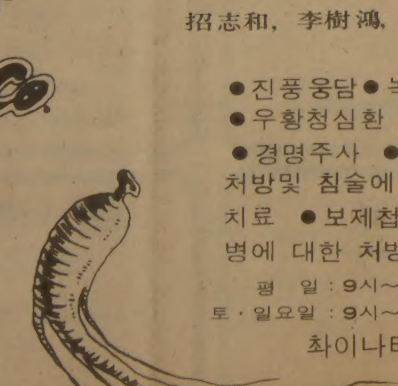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 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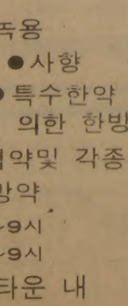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신장개업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권 PETER CHAN 배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
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평 일 : 9시~9시
토·일요일 : 9시~9시
차이나타운 내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말래카海峽에 海賊출몰

英海運등 싱가포르에 對策요구

油槽船3척 연쇄被襲

快速艇타고 총칼위협…掠奪

【런던·싱가포르5日UPI·AFP=聯合】세계의유수한선박회사와석유회사들은최근싱가포르앞말래카해협에서급증하고있는해적들의약탈행위를근절하기위한자위조치를강구하고있다。영국해운총평의회(GCBS)는 지난 수주일사이에 3척이상의 선박이 싱가포르 근해에서 해적들에 약탈당한 사건에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모종의 조치를 촉구해달라고 무역성과 외무성을통해 5일 요구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리베리아선주협의회도、일본행선박들이 꼭 통과해야만하는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섬 사이의 싱가포르남부 필립해협에서 최근 화물선3척이상이 해적들의 습격을 받은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고있다。

이번주초에만 해군 셀과모빌등 석유회사소속 유조선2척이 싱가포르해안에서 해적들의 기습을받아 약탈당했고 지난달에는 영국 브리티시·비치社소속 유조선을 해적들이 습격、돈을 강탈해갔다。

지난9월1일 밤에는 셀사가 전세낸 9만9백톤급 유조선 매머드·모나코호가 습격받았고 그전에는 모빌社의 2만9천9백60톤급 유조선 코르시카나호가 당했다。

해적들은 매머드·모나코號를 습격、선방해주는 댓가로 3만달러를 받아갔으며 코르시카나號는 4천달러를 털렸다。해적들은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기위해 소규모 쾌속정을 이용、고물쪽에서 화물선에 접근、침입한후 범행을 저지르곤한다。

해적들은 총칼로 승무원을 위협하고 선박에 실려있는금고나 기타 값나가는 물건을 강탈해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박업자들은 해적들의 습격을 막기위해 소방호수를보유하거나 선박주위를 환하게 밝히는등 예방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적들의 싸움에서 승무원들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무기휴대는 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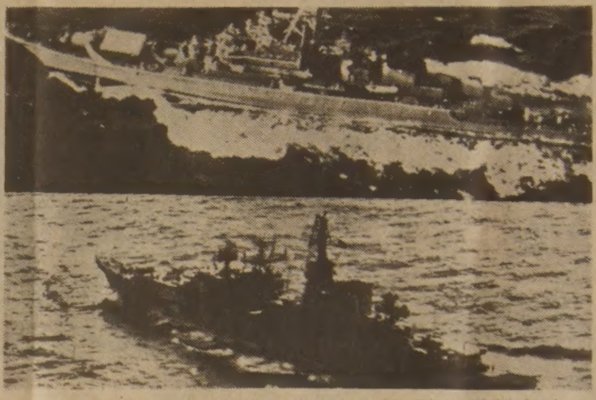
그러나 엑슨社의 子會社인 에소·싱가포르社는 해적활동에 대비하기위해 싱가포르에서 출항을 대기하고있는 自社선박들에 대해 무장경호원을배치하고있다고밝혔다。

유조선들에대한 공격은 최근 수개월사이에 갑자기 증가했다。

강력한 모터를 장치한 쾌속정이 개발됨에따라 해적들은 12~15노트의 속력을 가지고있는 유조선을 따라잡아 습격할수 있게 되었다。

해적의 약탈 행위는 보통 벵갈만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해역과 서아프리카 외곽해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말래카해협에서는 지난 수세기동안 수마트라와 열대지방의 해안에 근거지를 둔해적들이 출몰、소규모 선박들을 약탈해왔다。



◇캘리포니아해안 公海上에 접근했던 蘇艦2척

지난3일하오 北部 캘리포니아 해안밖 공해상에 접근했던 소련해군의 유도미사일 순양함 레티비호Ⓛ와 유도미사일 페트로파블로프스크호Ⓣ。이2척은 다른2척의 소련군함과함께 3일하오 캘리포니아 西北方 백50마일의 太平洋공해상을통과한후 美西部해안에서 모습을감췄다。【샌프란시스코4일AP電=聯合】

駐레바논 佛대사 被殺

베이루트서 怪漢4명 銃彈6발亂射

◇루이·델라마르大使

【베이루트4日AFP=聯合】루이·델라마르 레바논주재 프랑스대사(61)가 4일 베이루트시 서부중심가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은후 병원으로 급송되었으나 사망했다고 프랑스대사관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델라마르대사가 승용차로 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관저로 돌아가던중 관저로부터 2m떨어진 지점에서 괴한들의 저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피격2시간만에 절명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괴한들이 먼저 델라마르대사의 승용차를 정차시킨후 문이 잠겨있음을알자 6발의 총탄을 난사하고 도주했다고 말했는데 레바논경찰소식통들은 괴한들이 델라마르대사를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총격을 가한것같다고 전했다。

경찰소식통들은 괴한들이 모두 4명이었다고 말했다。

대사관대변인은 델라마르대사가 머리에 2발、그리고 가슴에 4발의 총탄을 맞았으며 운전사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않고 중상을 입은 델라마르대사를 인접 바르비르병원으로 급송했다고말했다。

괴한들의 범행동기와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사건은 클로드·셰이송 프랑스외상이 레바논을 방문하고 귀국한지 약1주일만에、발생한 것이다。

셰이송외상은 베이루트 방문중 야세르·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과 회담한바있다。

프랑스대사관과 관저는 베이루트서부 회교도거주지역에 위치해있다。

聯合政府구성에만 합의

軍事的 統一戰線엔실패

「캄」3派共同聲明

【싱가포르4日UPI=聯合】반베트남 연합전선 결성을위해 싱가포르에 모인 캄보디아 3대연합세력의 대표들은 4일 연합정부구성에 합의、9월중 열리는 유엔총회를 앞두고크메르·루지의 유엔대표권을 고수하기위한 외교상의 유리한고지를 차지했으나 군사면에서의 통일전선결성은 사실상 포기했다。

전 캄보디아 국가주석 시아누크공、크메르·루지의 키우·삼판、반공 우익게릴라 조직인 크메르 민족해방전선의 손·산은 이날 2일간의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4개항의 공동성명을통해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수립한 헹·삼린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저항세력을 결집、연합정부를 구성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1백50명의 기자가 지켜본 가운데 발표된 이 공동성명은 또 캄보디아문제에관한 국제회의의 결정과 캄보디아에 관련된 유엔의 모든 결의를 전폭 지지한다고말하고 반베트남 연합전선결성을 위한 전세계평화애호국들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埃 수천回敎徒 街頭시위

사다트政敵 검거선풍 抗議

【카이로4日UPI=聯合】이집트의 수천회교신도들은 4일 사다트 대통령이 회교성직자 및 정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벌이고있는데 항의、카이로시내 2개지역에서 격렬한 가두데모를 벌였으며 경찰은 최루탄을 이용하여 수십분만에 데모대들을 해산시켰다。

목격자들은 이날의 가두시위가 카이로동북쪽에 위치한 콥트교본부근처및 시중심부의 나일강상 로다도에서 동시에 발생했다고 전했으며 이집트의 안보소식통들은 경찰이 데모대와의 두차례 충돌에서 70명을 체포했다고말했다。

보안소식통들은 최근 며칠간 체포된 반정인사들이 약 1천명이라고 밝혔는데 카이로의 서방외교관들은 사다트 대통령이 「종교분쟁」방지란는 구실하에 자신의 정책에대한 모든 반대및 비판세력을 와해시키기위해 반정부인사 검거선풍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南阿共에 참석 拒否

나미비아 討議유엔特總

代表權회복 세번째 失敗

【유엔本部4日AFP=聯合】나미비아(서남아프리카)문제를 토의하기위한 유엔특별총회는 4일 나미비아를 통치중인 남아공화국의 유엔대표권 회복신청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총회산하 신임장위원회는 앞서 남아공의 대표권회복신청을 6—1로 부결시킨바있는데 총회는 신임장위원회의 결정을 1백17대22、기권6으로 승인했다。

남아공은 이로써 지난74년 인종차별정책을 이유로 총회에서 축출된지 세번째 걸친 대표권 회복시도에서 모두실패했다。

이날 표결에서 미국과 대부분의 서구국들이 남아공의 대표권회복을 지지했으며 일본·스페인등 6개국은 기권했다。

총회의 표결로 회의참석이 거부된 남아공의 아드리안·엑스틴대사는 귀국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아공의참여없이는 나미비아문제에 대한 어떤것도 달성될수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앙골라서 反政軍지원 再開

南阿共、物資수송 작전돌입

【루안다4日AFP=聯合】남아공화국은 앙골라남부및 서남부지역에 2개전투부대를 투입한외에 현재 친소 앙골라정부전복투쟁을 벌이고있는 UNITA(앙골라의 완전한 독립동맹) 게릴라들에게 1군사장비를 재보급하기위해 개량수송부대를 앙골라동부에 새로 투입했다고 루안다의 서방외교관들이 4일 밝혔다。

外交官 危險지대

戰禍속 베이루트서 被擊잇달아

인사이드

【베이루트4日AFP=聯合】프랑스의 루이·델라마르대사가 3일 피살된 베이루트는 가장 경계가 삼엄하면서도 외교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로 꼽힌다。

델라마르대사는 75년 레바논내전으로 분파간 긴장이고조된이래 지난 봄의 외교관 피습사건이후 가장최근에 희생된 외교관이다。

프랑스정부는 금년초 레바논주재 요르단대리대사 히샴·모하이센의 유괴사건이후 외교관들에대한 신변불안이 가중되자 공정대까지 파견、베이루트대사관을 경비하고 있다。

베이루트 주재 외교관들은 거리에서 전투를 벌이는 무장괴한이나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가장 취약점이 많다。

최근 몇년동안 아랍제국과 서방대사관은 로키트탄 박격포、수류탄 세례를 받아왔기때문에 레바논주재 고위외교관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근무지에 와 있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베이루트에서 최초의 외교관 희생자는 76년6월 경제담당영사와 함께 납치되어 살해된 프랜시스·멜로이 레바논주재 미국대사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지중해연안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은 수차례 로키트포와 기관총세례를 받았다。전 미국대사 존·건더·딘은 80년8월 자신이 탔던승용차에 수류탄이 투척되었으나화를면한바있다。

또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과 함께 두나라 외교관과 대사관직원들에 대한 공격사전이 자주 발생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한예를 들면 베이루트시내에 인접한 이란과 이라크대사관 경비병끼리 박격포와 로키트포를 발사하고 수류탄을 공격하는일까지 벌어졌다。

◇베이루트 거리의 무장폭력—외교관도 빈번히 희생되고있다。【UPI】

로키트·박격포세례에 「特攻隊경비」등스스로

방탄유리창·경보장치·보디가드등 삼엄

다른아랍공관 몇곳에도 표적이 돼왔다。사우디공관은 팔레스타인게릴라의 주류인 알·파타에서 차출된 특공대가 경비하고있다。대부분서부베이루트에 자리잡고있는데 이곳은 지난75~76년내전이후 기독교도거주지인 동부와 그린라인으로 분할된 지역이다。여러사절단건물은 중무장군대들이 경비를 하고있는 정당당사들로부터 불과몇미터밖에 안떨어져있는 곳에 자리잡고있다。

현재 레바논에는 치안을주로 맡고있는 평화유지군3만명이있지만 치고달아나는 기습공격을 막아낼도리가없다。따라서 공관들은 거의 스스로 자위조치를 강구하고있다。

몇몇사절단원은 개인보디가드를 고용하고있고 건물에는 방탄유리창、장갑철판출입문、고성능경보장치를 설치하고있다。

많은 공관들은 위험성이높다는 이유를들어 직원들에게 가족을 베이루트에 데려오지 못하게 하고있다。공관원에게 남쪽의 불안한 시리아—이스라엘국경지역은 절대 출입금지구역이다。

델라마르는 지난2년여동안에 세계적으로 근무중 피살된 최초의 대사이자 외교사절단단장이다。최근의 희생자는 79년5월30일 납치됐다 도주하던중 살해된 유고·웨이 엘살바도르주재스위스대리대사였다。

그러나 최소한 20명의 12개국출신 대사및 외교사절단장들이 지난2차대전이래 여러주재국에서 피살됐다。

예루살렘분쟁 유엔조정관이었던 스웨덴의 버나도트백작은 48년 유대인극렬분자에 살해됐고 영국고등판무관 헨리·거네이경은 51년 말레이지아비상사태때 공산게릴라 복병에게 피살당했다。

教皇 암살 미수 事件에 KGB介入說 근거있다

英紙

【런던5日AP=聯合】서방정보전문가들 특히 西獨 전문가들은 소련비밀경찰(KGB)이나 東歐권내의 KGB하부조직중하나가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암살미수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있음을 확신하고있다고 런던·타임즈紙가 5일 보도했다。

런던·타임즈紙는 서독정보전문가들이 교황암살미수범 알리·아호자가 단순히 광신주의자가 아니라 東歐에 거점을둔 모종의 국제음모단의 일원이었다는 교황청과 이탈리아보안당국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蘇KGB介入說에 바티칸 논평거부

【런던4日AP=聯合】로마교황청관리들은 4일 소련비밀경찰(KGB)이 지난5월의교황 요한·바오로2세 암살미수사건에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영국의 템즈TV방송보도에 관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교황청의 한 소식통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교황청은 논평을 함으로써 그같은 보도의 권위를 높여주는것은 원치않는다고 말했다。

템즈TV방송은 지난3일밤 KGB의 교황암살기도사건개입설을 보도하면서 교황이 폴란드자유노조의 반정부입장을 옹호한것이 KGB의 사건개입을 부른 동기였다고 보도했었다。

피비土星위성 또寫眞보내와

보이저2호

【패사디나4日AP=聯合】美우주탐색선 보이저2호는 토성뒷면을날때 발생한 카메라고장을 극복、토성의 위성중 가장멀리떨어진 피비의사진을 송신해왔으며 이사진은 피비가 토성에의해「붙잡힌」혜성임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패사디나 제트추진연구소의 엘런·우드 대변인이 4일 밝혔다。

◇기록세우는 할머니 英國 스태퍼드샤이어에 거주하는 60세나 되는 에디트·서머즈여사가 여자 스카이다이버로서는 최고기록인 1백번째 공중낙하 기록을 세우면서 2천1백m상공에서 미소지으며 뛰어내리고있다。【키스톤=聯合】

海外토픽

LA 强度5·8地震발생

진도크나 큰피해는 없어

4일 상오 8시50분(한국시간5일상오1시50분) 지진이 공교롭게 2백주년 생일잔치에 들뜬 로스앤젤레스市의 중심가를 비롯 남가주일대에 가벼운 진동을 일으켰다。

골든 국립지진정보 센터의 지진분석관 웨이벌리·퍼슨씨는 이번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기로 5·8을 기록했으나 진원지가 롱비치에서 배로 2시간거리인 캐털리나섬 근처였기때문에 LA와 남가주전역은 미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으로 LA市의건물들이 흔들려 선반위의가재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LA—샌디에이고간 열차운행이 잠시중단되기도 했다。

시당국은 그러나 이날하오 3시(한국시간5일상오8시) 현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관한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일어난 지진에 가장 놀란사람들은 엘리베이터안에 타고있던 사람들로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분간할수없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날 지진은 네바다사막에서 2만톤급의 핵폭탄실험이 있은지 1시간후 발생했다。이에대해 캘리포니아工大연구소측은 『우연의 일치일뿐 지진이 핵실험때문에 일어난것은 결코아니다』고밝혔다。

지진으로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전화국업무가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했다。

이번지진은 1971년2월 지진이래 남가주에일어난 가장강한 지진이었으나 예상외로 진동이 약하고 피해는 거의없었다。이날은 2백년전(1781년) 44명의 멕시코이주민이 정착하여 LA市의 기원을 이룬 생일날이다。

그때문에 방송들은 『지진이 LA의 생일을 먼저 축하했다』는 유머를 내보냈다。【로스앤젤레스支社】

오늘의 小史 <6일>

- ▲매킨리 美25代대통령 被殺 (1901)
- ▲獨, 국제연맹 가입 (1926)
- ▲韓國民主黨 발기선언 (1945)
- ▲女軍창설 (1951)
- ▲SEATO창설 (1954)
- ▲南陽九峰광산楊昌善씨구출 (1967)
- ▲蘇·벨렌코, 미그25A 몰고 日에 착륙 (1976)

메아리

1백74년동안 고수했던「남성聖域」에 여성들이 달려왔다。미국 웨스트 포인트사관학교가 지난76년 처음으로 여자사관생도를 받아 들인것이다。

美女의 성문을 열기전 사관학교 당국은 과연 여성이 남자들과 같이 고된 훈련을 받아 낼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를 했다。결론은 여성도 감당할수 있다는것이었다。

남자의 근육비중은 몸무게의 51.5%인데 비해 여자는 39.9%밖에 안되어 피로가 빨리오고 더위에 지치기 쉽지만 어려운대로 참아낼수있다는 판단이 선것이다。

입교한 여자사관생도의 체력적응도를 주시해온 인류학자 킨저박사는 小心性이 결코 여자의 특성만은 아니고 용감성 또한 남성의전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1백19명이 입교하여 절반가량이 중퇴하고 62명이 임관했다。놀랍게도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전투병과를 지망했다。

지금 웨스트 포인트엔 한국계 학생 20여명이 재학중이고 여성도 3명이 있다고 한다。맹렬여성시대의 상징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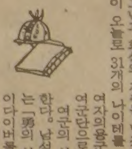
智勇美

우리 女軍은 오늘로 창설 31돌을 맞았다。여군의 산실은 6·25戰場이었다。9·28수복의 勝機가 잡히기 직전인 1950년 9월6일 부산에서 여자의용군이 탄생했다。가정과 직장、학교에서 3천여명이 軍門을 지원했다。5백명이 선발되어 여군은 첫발을 내디뎠다。

6·25를 겪으면서「女軍의 亂中일기」엔 많은 고난과 희생의 자취를 남겼다。그절박했던 출발이 오늘로 31개의 나이테를 새기게 된것이다。

여자의용군은 여군처로、다시 여군단으로 성장했다。

여군의 신조는 智·勇·美라고 한다。남성과 어깨를 겨루겠다는「勇의 신념」이 여성 스카이다이버를 배출했고 지난 7월엔 첫 여성헬리콥터조종사를 탄생하게 했다。



행정에서 전투지원까지 娘子軍의 임무는 다양하다。속기、경리、정훈、통신등의 업무와 대적심리전 방송도 맡았다。이들은 철저한 1人1技교육으로 모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다。

「국토방위에 남녀가 없다」는 확신이 31돌을 맞는 우리 여군에 배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축하를 보낸다。

와인버거 연설

『越南戰같은 戰爭엔 美國靑年 파견안해』

【호놀룰루4日UPI=聯合】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3일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청년들을 또다시 월남전과 같은 전쟁에 보내지는 않을것이라고 다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제63차 미재향군인회 연례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젊은이들에게『그같이 용서받을수없는 요구를 결코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만일 미국이 승리를 원하지 않을정도로 심각한 전쟁이 아닌경우 미국의참전을 필요로하지않을 것』이라고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이 연설에서 자유에대한 소련의 위협과 지난1950년대 미국이 누리던 전략적 우위의 상실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무장이며 이는 고가의 노력이기는하나 반드시 인플레를 동반하는것은 아니라고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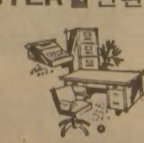
와인버거장관은『예산요구에 쫓겨서만든 전략으로 미국의 핵우위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미국의 전략변화는 장기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인버거장관은 미국이 내에 소련과의 무기제한회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나 힘의 입장에서 회담을 진행해야만 성공을 기대할수있다고 말하고 유럽에서 4대1로뒤지고있는 탱크전력열세를 만회하기위해 중성자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사무용 학생용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한국、金義明에 11安打뺏어

金相國·車東哲연속타 1차전 日선발에 逆轉勝

韓·日高校야구 대회

安打없이 決勝點 올려

한국、繼投로 5安打산발시켜 2次戰 도勝利

81년도 韓日고교야구대회가 4일밤 서울운동장에서개막、한국고교선발팀은 3연전 으로 승부를 가리는 대회 1·2차전에서 모두 승리、2선승으로 우위를 과시했다。

◇金泰明의 盜壘 3회초9번 金泰明이 1死후 포볼로 나간후 포수의 견제악송구를 틈타 2루 에 진출하고있다。

한국은 4일밤의 1차전에서는 日本전국선수권대회(고시엔대회) 우승팀인호오도꾸(報德)高의 한국동포 에이스 金義明으로부터 11안타를 빼앗아 4－3으로 승리했으며 5일 2차전에서는안타수 1－5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3회초 1死후포볼로 진출한 柳仲逸이 후속땅볼과 日本의 좌완선발 구도(工藤)의 1루견제 악송구를 틈타 결승점을올려 1－0으로 신승했다。

2차전은 5일 하오3시30분에 벌어진다。

5회까지 日本의 장타력에 2－1로 리드당했던 한국은 6회말에 터진 李相明의 우중월동점3루타로 승리의 계기를 잡았다。

6회말 1死후 5번 李敏宰가 金義明과의 끈질긴승부끝에 포볼을 골라나가고 2死후 2盜에 성공、7번 李相明은 2－2동점을 기록하는 우중월 3루타를 때리고 8번 金正洙의 중전적시타에 힘입어 홈인、3－2로 전세를 뒤엎었다。

한국은 여세를몰아 7회말 2死후 3번金相國의 내야안타、4번 車東哲의우전안타、이타구를 쫓아간 日本 우익수 鄭昭相이 어물거리는사이 1루주자가 2、3루를 돌아 홈인、급조된 日本선발팀의 보이지않는 수비실책으로 결승점을 얻었다。

日本은 1회초 선두1번 高廣秀의 중전 첫안타와 2회타로 1점、5회초 선두高廣秀의 우월2루타와 보내기트、3번 야마모토(山本)의 좌월적시2루타로 1점을 모아 전반서게임을리드했다。

8회초 日本은 선두4번金義明의 중전안타、5번 니시하라(西原)의 우전안타、6번 吉道明의포볼、7번오오다니(大谷)의 중전안타등 연속 3안타 1포볼로 1점을만회 4－3으로 추격했으나 無死만루의 계속된찬스에서 8번 鄭昭相의 스퀴즈번트가 홈플레이트 코앞에서 포수에게잡혀 홈과1루에서병살돼 재역전의 기회를 잃었다。

日本외 주전으로 기용된 한국동포4명중 1번 高廣秀는 5타수3안타 2득점을、4번 金義明은 3타수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제1차전

일본	100	010	010	3
한국	001	002	10×	4

東洋太平洋권투聯 하와이 새로加入

하와이가 동양 태평양권투연맹(OPBF)에 새로 가입했다。

5일 신라호텔서폐막된 금년도 OPBF총회는 하와이를 신회원으로 가입시키자는 濠州의 제안을 만장일치로승인、OPBF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어났다。

東北·江陵商·通津高 8強대열에 선착

青龍旗축구

東北高 江陵商 通津綜高가 8강전에 선착했다。

청룡기쟁탈 제36회 전국중고축구선수권대회 6일째경기 5일 효창운동장서 속행、고등부 3회전서 東北高는 金承春의 헤딩·슛으로 결승점을 만들어 注文津水高에 1－0으로 이겼으며 江陵商은 光云電工과 골을 주고받는 격전끝에 1－1 무승부를 기록、승부킥서 4－1로 이겨 각각 8강대열에 올라섰다。

중등부 준준결승전서는 安養中과 崇義中(광주)이 각각 이겨 준결승에 올랐다。

東北高는 후반18분 朴贊植이 오른쪽서 코너킥한볼을 注文津문전 좌측에있던 金承春이 헤딩·슛、깨끗하게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江陵商은 전반7분 光云의 崔光志에게 골을 허용、1－0으로 리드당하다가 28분께 吳承煥이 동점골을 기록하고 승부킥서 전세를 뒤집었다。

◇제6일전적

▲고등부3회전

동북고교 1（1－0 0－0）0 주문진수고

강릉상고 1（0－1 1－0）1 광운전공 〈승부킥4－1〉

통진종고 0（0－0 0－0）0 마산공고 〈승부킥4－2〉

▲중등부준준결승

안양중 0－0 경성중 〈승부킥3－2〉

광주숭의 3－2 주문진중

주니어排球 印度에 完勝

세계선수權대회

文湧冠강타·李採彥속공 주효

3—0

【스프링스（플로라도）5日=聯合】한국남자주니어배구대표팀은 5일 새벽（한국시간）플로라도 스프링스의 팔머고교 체육관에서 벌어진 제2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예선C조 첫경기에서 印度를 3－0으로 가볍게 꺾고 서전을 장식했다。

강력한 우승후보 한국은 이날 1·2세트에서 印度의 장신 블로킹에 다소 고전했으나 상대작전을 손쉽게 분석、이에 대처함으로써 완승했다。

한국은 첫 세트서 8－4로 순조롭게 리드를 잡아나가다가 인도의 장신 음（197㎝）조지（195㎝）의 블로킹에 걸려 주춤했으나 文湧冠·李鍾敦의 잇달은 강타와 상대 실책 2개로 15－11로 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에서 한국은 韓壯錫·金潤虎·李採彥 트리오의 대각선 공격이 주효 7－2、13－6까지 순조롭게 앞서갔다。

그러나 종반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리시브불안과 공격실수로 범실이 많아 13－10까지 추격당했으나 文湧冠의 블로킹과 인도의 공격미스로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치 않고 15－10으로 끝냈다。

마지막 3세트에 들어 한국은 文湧冠·鄭龍河의 블로킹이 적중하고 李採彥·韓壯錫의 속공이 불을뿜어 인도를 4점에 묶어 두고 승리했다。◇첫날 전적

▲C조

한국 3（15－4 15－10 15－11）0 인도

(1승)　(1패)

◇黃石根의 첫골순간 韓國팀의 黃石根 선수가 싱가포르의 수비선수를 제치고 첫 골을터뜨리는 순간。韓國은 이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꽐라룸푸르 4日AP電=聯合】

대통령旗 테니스 7日 장충코트서

제7회 대통령기 전국남녀테니스 대회가 7일 장충코트에서 열린다。

남자 4단식 1복식、여자 2단식 1복식의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남일반부에 9팀、여일반부에 8팀、남고12팀、여고14팀이 출전한다。

黃石根·邊炳柱 1골씩

메르데카杯축구 약체 싱가포르完破 2－0

새길밤 브라질과 2차전

【꽐라룸푸르4日=聯合】한국의 花郞팀은 4일밤 이곳서 벌어진 제25회 메르데카 쟁탈 축구대회 5일째 예선B조 첫 경기서 FW 黃石根과 邊炳柱의 수훈골로 싱가포르에 2－0으로 완승、1승을 기록했다。한국은 7일 밤 브라질(사웅파울루선발)과 예선2차전을 벌인다。

한국은 전반2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미드필드 오른쪽에서 HB 趙廣來가 黃石根에게 패스、黃은 볼을 잡아 싱가포르 페널티에리어 왼쪽에서강슛을 성공시켰다。

게임을 압도하면서도 추가골을 올리지못하던 한국은후반30분 邊炳柱가 싱가포르페널티에리어 정면서 강슛을 성공시킴으로써 2－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이날 한국의 스타팅·멤버는 GK 鄭聖敎 FB 朴成華·張外龍·朴景勳·權五孫 HB 李康助·趙廣來·李泰昊 FW 黃石根·丁海遠·邊炳柱였고 趙競衍과 吳錫載가 교체 선수로 들어왔다。

◇제5일 전적

▲B조

한국 2（1－0 1－0）0 싱가포르

(1승)　(2패)

브라질 2－1 이라크

(1승)　(1패)

◇제4일 전적

▲A조

일본 3－2 인도

李日福 2회KO勝 J플라이級랭킹戰

【釜山=聯合】프로복싱WBC 주니어플라이급8위 李日福은 4일밤九德체육관에서 동급1위인 泰國의 피펀·유스와 가진 10라운드경기에서 우훅을 터뜨려 2회2분58초만에 KO승 했다。

프로복싱 OPBF·WBC 서울總會맞아 國際빅게임계속열려

OPBF(동양권투연맹) 총회와 WBC(세계권투평의회) 총회를 맞아 6、7、9일 서울에서 잇따라 프로복싱경기가 벌어진다。

OPBF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인 吳英世는 6일저녁 문화체육관서 OPBF 페더급 챔피언인 日本의 노장 로열·고바야시(小林)와 실력대결 12회전을 벌인다。

2년전 문화체육관서 李鍾倫과 격렬한 타격전을벌여팬들을열광시켰던 로열·고바야시는 35승(27KO) 6패의 전적을 마크하고있으며 신예 吳英世는 8연승(5KO)。

WBA 주니어 페더급9위이며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있던 金貞喆은 7일저녁 장충체육관서 필리핀 페더급의 강호 멜모·마크란과 10회전을 벌인다。

아마추어때 밴텀급 한국대표로 활약했던 金은 최근 麥錫雲씨를 새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세계무대진출을 목표로 맹훈련을하고 있다는 것。

또한 OPBF미들급챔피언인 朴鍾八은 9일저녁 장충체육관서 동급5위인 泰國의 마나·프랜차이와 타이틀 11차방어전을 펼친다。

이날 방어전에는 WBC총회에 참석한 국제권투관계자들이 참관할 예정이어서 朴의 기량을 평가받는 테스트전의 성격도 띠고있다。

朴은 현재 21승(20KO) 1무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있다。

吳英世 日고바야시와 타이틀戰 6일
金貞喆 比마크란과 10회전경기 7일
朴鍾八 泰프랜차이와 11차방어 9일

◇朴鍾八

◇金貞喆

◇吳英世

月曜企劃、에밀레종 神秘벗겨

科學장비동원·숱한 說話분석

KBS1TV

KBS 제1TV는 7일 오후7시45분 「월요기획」시간에 「신라의 신비」시리즈 제4편 「에밀레종」을 방영한다。

수많은 설화가 얽혀있는 「에밀레종」을 과학적으로 접근、신비를 캐기위해 「오실로스코프」등 과학장비를 동원、다각도로「에밀레종」의음향을 분석했으며 옛문헌에따라 당시의 주조방법대로실물크기의 20분의1종되는 에밀레종을 주조해보았다。또 현재의 주조방법과도 비교、당시의 주조기술이 뛰어났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했다。

특히 한국종은 여운이길고 전달력이 강한 점을 음파의 주파수 측정을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또 日本종(建長寺종)과도 비교하여 한국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정확한종의 제원과 성분을 밝혀내는 분석실험도 시도했으나 文化財委員會의 반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KBS는 「에밀레종」제작에 5개월간의 기간과 6백여만원의 제작비를투입했다。

이 프로그램제작및 고증에는 서울대 공대 염영하교수(기계설비) 동국대 문명대교수(미술사) 김용국 국립극장 무대과장등이 참여했으며、日本의韓國종에관한전문학자인東京국립박물관학예부금공실장 坪井良平씨가 특별초청되었다。

◇에밀레종의 신비를 캐고있는 「월요기획」。

공　고

금번 세종한글학교는 오는
9월12일부터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뉴스래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기
학교에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579－9899
576－7021(김 덕 수)

세 종 한 글 학 교
교장 김덕수

노년들을 위한 온타리오세금 보조금

작년 온타리오정부는 노년층을 위한 세금제도를 바꿔 재산세와 판매세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주정부는 재산세 보조로 가구당 최고 연500달러를 2번에 걸쳐 지급한다 판매세 보조는 65세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매년 50달러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재산세 보조

신청방법 :

1980년 재산세 보조는 한번에 지불되었으나 1981년에는 두번에 걸쳐 지불된다 전반기분은 봄에 자동적으로 지불되었으며 그것은 1980년도 액수의 절반이다

그러나 후반기 분을 원하는 분은 신청서를 세무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연방노년연금 수혜자로서 재산세 보조 유자격자이면**9월중순**에 보조 신청서를 받는다 지금부터 12월까지 사이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1982년 초반에 신청서를 받게된다 연방·노년연금을 받을 자격은 없으나 재산세보조를 받을 수 있는 노년자들은 역시 신청서를 받을 것이다

세무청은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년층들에게만 신청서를 보내고 있다 만약 당신이 9월 21일까지 신청서를 못받는다면 그러나 당신이 재산세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무료전화를 이용 안내소에 연락하면 된다

유자격자 :

●65세 이상자로써 집이있거나 렌트를 했을때 500달러까지의 재산세보조를 받는다
●렌트를 했을 경우 총 렌트료의 20% 또는 500달러(둘중 낮은 금액적용)
●집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같은액 또는 500달러(둘중 낮은 금액 적용)
●배우자와 같이 살거나 또는 65세이상의 어떤 사람과 같이 동거할 경우에도 한 가구로 인정된다
●배우자가 아닌 65세이상의 어떤사람과 같이 살때 보조금은 집세 또는 지불된 재산세에 따라서 배분된다

정확하게 신청서를 기입하십시오.

신청서를 좀 더 신중히 기입하고 다시 검토하라 이것은 세무청이 당신의 신청서를 처리, 수표를 빨리 보내도록 돕는 길이다 수표들은 10월 후반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예　외 :

요양원 또는 양로원 거주자로서 치유비용을 본인이 부담했고 요양원 또는 양로원은 시세, 교육세등을 내지 않았다면 보조를 받지 못한다 재산세 면제 건물 거주자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81년도에 요양원 또는 양로원에 입주했다면 이주 전 기간을 계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년에 온타리오로 이사했다면 이사후의 기간을 계산, 보조금을 준다

판매세

판매세 보조금 50달러짜리 수표가 10월중 모든 온타리오 거주 노년들에게 자동우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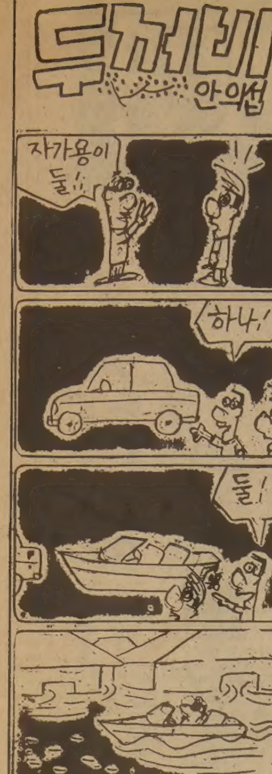
무료 장거리 전화

메트로·토론토서는 965－8470, 국번 807지역서는 교환수를 불러「지너스」8－2000 다른 지역서는 1－800－268－7121

Ontario Ministry of Revenue

George Ashe Minister
T.M. Russell Deputy Minister

노년들을 위한 온타리오 세금보조금



기구한 運命의 無期囚
國會에 赦免탄원

殺人사건관련 抗訴中 6·25터져 궐석裁判서 "死刑"

"公訴시효만료"釋放 23년만에
76년 不渡조사중 재수감신세

33년전 서울乙支路노상에서 있었던 강도살인사건에 억울하게 관련, 6·25동란의 와중에서 정당한 재판절차도 거치지않고 사형을 선고받고 뒤늦게 복역중인 한무기수에대한 특별사면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安養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무기수 崔峰秀씨(58)가 바로 그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 崔씨는 해방후 고향光州에서 기마순찰대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경찰정보원이 되어 공산계열에 침투, 거물급 남로당원 50여명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었다.

◇무기수崔峰秀씨。

이때문에 崔씨는 26세때인 48년 남로당으로부터 살해지령을 받았고 光州경찰서 尹모경위및 文常雄형사와 함께 그해 11월 서울로 피신하여 文형사의 약혼녀인 朴洋약(당시23세·현재 議政府市거주)집에 유숙하고 있었다. 11월26일 집을나간 文형사를 찾아나갔던 崔씨는 中部경찰서 형사대에 붙들렸다. 文형사는 하루전인 25일하오7시 乙支路4가 앞길에서 서울사대학생 李杞出군(22)을 단도로 찔러죽인 혐의로 검거되었고 崔씨를 이사건의 공범이라고 文형사가 자백했다는 것이었다.

崔씨는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나 결국고문에 못이겨 자백을했고 50년4월 文형사와 함께 서울지법에서 사형을선고받았다.

崔씨는 즉시 항소, 2심을 기다리던중 6·25가 발발, 적치하의 혼란을 틈타 서대문형무소를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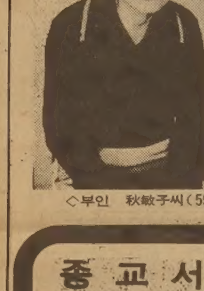
이때 文형사는 崔씨에게같이 월북할것을권유했으나 崔씨는 『누명을 벗고 떳떳이살겠다』고 거절, 文씨만이 월북했다.

崔씨는 그후 경남山淸으로 내려가 향토방위대 소대장으로 공비토벌에 공을세웠지만 53년4월 大邱지검의 소환을 받고 48년의 살인사건과 관련, 구속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미비와 도주죄의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崔씨를 석방했다.

崔씨는 이결정으로 누명이 완전히 벗어진것으로 믿고 57년 상경, 포목상등으로 재산을 모았고 75년엔 林正기업이란 무역회사를 설립, 中區豊林洞에서 2남1녀를 거느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76년6월 부도수표관계로 조사를 받던중 경찰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무료변호에나선 金鳳煥변호사는 崔씨에대한 항소심판결이 명백한 하자가있었음을 들어 『무기수 崔峰秀는 특별사면하고 그형의 집행을 면제할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를 5일 국회에제출한것이다. 【崔秉泰기자】


◇부인 秋敏子씨(55)。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홍품, 백과사전(월부)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한국배 日近海침몰
船員구조 船長실종 파나마船과 충돌

【東京5日AP=聯合】 한국화물선 海熊호(1천9백79톤)가 4일밤 일본서남쪽의 시코쿠(四國)島와 기이(紀伊)반도사이 해상에서 파나마화물선 서던·커리어호(3만3천3백62톤)와 충돌, 침몰했다고 일본해상보안청관리들이 5일새벽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教聯、돗자리 波紋引責
教職부장辭表수리、곧事務總長도

대한교련(회장鄭範錫)은 5일 국회문공위원들에 대한 돗자리선물사건에 책임을 물어 韓京洙교직부장(46)의 사표를 4일자로 수리한데이어 일본에 출장중인 鄭石圭사무총장(51)도 귀국즉시 사표를 받을 방침이라고밝혔다. 교련은 이날 이문제와관련, 해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6월16일 국회문공위에서교육공무원법개정심의가끝난뒤 7월21일께 교직의 전문성확립에 공이 많은 9명의 문공위원에게 분회예산 범위내에서 13만2천원짜리 돗자리1개씩을 선물했다』고 밝히고 『이선물이 관계위원과전국민에게 심려를끼치고 사회적물의를일으킨데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무직20代、秋夕비상근무 防犯隊員 수훈
永登浦 拳銃싸들고 犯行장소물색하다
전당포 強盜미수범 檢擧

5일 상오10시15분께 서울永登浦區 永登浦洞1街104 영이사 전당포(주인 李鍾學·50)에 孫鍾興씨(28·무직 서울冠岳區奉天4洞898의6)가 강도를 하려고 들어갔다가비상근무중이던永登浦경찰서역전파출소소속金鳳浩방범대원(26)에게붙잡혔다. 孫씨는 이날 상오10시께 가방속에 신문지에싼 권총을 숨겨들고 3층에있는 전당포 창구앞에서 4층계단을 향해 기웃거리다 전당포안에 있던 경리직원 李康浩씨(26)가『어데를 가느냐』고 묻자 『전당포에간다』고 대답하고는 아래층으로 다시내려가버렸다.

이를 수상히여긴 직원 李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전당포안에서 비상근무중이던 방범대원 金씨가 계단입구를 나서던 孫씨를 붙잡은것. 孫씨는 이날 권총을싸가지고 범행장소를 물색키위해 한일은행 新吉洞지점과이웃 정신사금은방(永登浦區新吉3洞254의1)등을 기웃거리다가 영이사전당포로 들어왔었다.

한편 경찰은 孫씨가 가지고있던 권총이 孫씨집아래층에세든 우병수씨(36)가 2년전 미국에 유학가면서 맡겨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孫씨를 강도미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우씨를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할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孫씨가 범행에 사용할 권총 1정과 1백28발의 실탄을 압수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날 추석을앞두고 각종 범죄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제12기 名人位 시상식
本社제정 曺薰鉉8단에 상패·부상

한국일보社제정 제12기 名人戰시상식이 5일 하오2시 본사 4층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본사張在九사장은 제12기 名人位를 방어한 曺薰鉉8단에게 名人位상패와 부상으로 상금1백80만원을, 徐奉洙7단에게는 준우승상금4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시상식이 끝난후 張사장은 참석인사들과함께 우리나라 바둑계의 건전한 발전을위한 방안등을 논의했다.

◇張在九본사 사장이 曺薰鉉名人(오른쪽)에게 名人位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있다.

올科學展 大統領賞
地球과학의 統合的학습자료
共同출품 魯永云씨(全南敎委)·金吉洵씨(光州一高)영예
國務總理賞엔 「音波를 이용한波動…」 井邑高교사팀

올전국과학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상금 2백만원)은 魯永云씨(44·전남도교위 장학사)와 金吉洵씨(39·전 光州제일고교사)가 공동출품한 지학부분의 「地球科學의통합적학습자료개발」이, 국무총리상(〃1백만원)은 柳錦仲씨(43·전북井邑高교사)와 林勝東씨(34·〃)의 공동작품인 물리부분의 「音波를 이용한 波動의 干涉실험장치」가 각각 차지했다.

제27회 전국과학전심사위원회는 5일 이밖에 총2백63점의 입선작을 가려내고 이중 학생특상(상금 각10만원) 11점, 교사및 일반특상(〃30만원) 12점과 우수상(〃학생 5만원·일반 10만원) 79점, 특별상 10점을 뽑았다.

趙炳夏심사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은 『올 전국과학전의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있는 중화학공업분야에 특히 많은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수준이 예년에비해 크게 향상된것』이라며 『특히 대통령 수상작품은 당장 학교교육에 활용할수있는 좋은작품이었다』고 평했다.

제27회 전국과학전은 8일부터 10월7일까지한달간국립과학관 전시실에서 일반에게 공개된다. ★관련기사7면

서울大生 3백명康津에
"우리도 水害復舊"

서울대학생 3백여명이 5일 하오2시 태풍 애그니스호로 수해를 입은 전남康津으로수해복구작업을위해 떠났다.

서울대학도호국단(학생장 金鳳珍군·인문대영문학과 4년)이 5일 교내방송을통해 『수해복구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자』고 호소, 학생 3백여명이 이에 호응한것. 학생들은 이날 하오2시학교측에서내준 5대의 버스로 학교를 출발, 일요일인 6일 하룻동안 전남康津郡群東面사무실에서 面직원의 안내로 쓰러진 벼포기를 세우는등수해복구작업을 도왔다, 7일상오 서울에 돌아올예정이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 농촌봉사를 한적은 있지만 주말과 휴일을이용, 학기중에 수해복구작업에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釜山=聯】 釜山대학교는 5일의사1명과 의대생 4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 4개반과 5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노력봉사단 4개반을 편성, 이번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보내 방역및 의료활동, 노력봉사등에 나섰다.

의료봉사단은 이날상오11시부터 釜山市西區沙下출장소와 北區三德국교 北區大渚2洞사무소등에서 방역작업과 치료를 하고있으며 노력봉사단은 西區南富民洞등을 비롯해 松島해수욕장, 西區甘川1洞, 下端洞 등지에서 해일로 파손된 길과 호안도로 복구작업을하고있다.

나의이력서
윤치영 ⑩
〈題字·尹致暎〉

解放후의 昏迷
左翼系선 "蘇軍서울進駐" 군중 선동
古下집서 國民代表회의 準備委 구성

8월15일。해방된 거리는 벅찬 감격으로 들어올랐다。긴세월 압록의 凍土였던 山河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때의 감격을 어찌 筆舌로 얘기할수가 있겠는가。

해방은 이땅에 목메어 그리던 자유를 가져왔다。이어 혼란도 겹쳤다。[illegible]을 죄던 속박의 사슬이 풀리면서 불가피하게 밀어닥치는 혼란도 있었고 민족의 균열을 획동하는 혼란도 있었다。

나는 古下 宋鎭禹、雪山 張德秀、夢陽 呂運亨、常山 金度演등 선배 동지들과 거의 매일 만나 해방이후의 정세와 그 대비책을 논의했다。

8·15직후 총독부의 엔도(遠藤)정무총감은 제일먼저 古下에게 치안대책을 세워줄것을 교섭했다。

古下는 一言之下에 그 청을 거절했다。엔도는 日帝의 敗色이 짙어지자 8·15전에도 古下 夢陽 民世등에게 政權인수를 슬그머니 제의한바 있었다。

해방되던날 마침 내가 苑西洞의 古下집에 갔더니 古下가 그 얘기를 했다。나는 『참 잘했다』고 말해주었다。당시 우리의 생각은 李承晩박사와 上海임시정부인사들이 들어와야 정권을 설계할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古下와의 교섭에 실패한 정무총감은 夢陽에게 또 교섭했으나 그도 일단 그청을 거부해버렸다。

그때쯤 나는 桂洞에서 夢陽을 만났는데 그는『소련軍이 서울에 들어온다』며 들뜬 표정이었다。나는 『무슨 소리냐。소련軍은 절대 서울에 못들어온다』고 말했다。이때부터 난 夢陽과 크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난 夢陽이 左翼系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어지러운 상황으로 보아 가능한 힘을 합쳐 일할 생각이었다。

夢陽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해방되기 몇달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루는 民世 安在鴻이 安國洞 내집엘 찾아와 『정무총감이 보자고해서 갔더니 나와 呂運亨、尹致暎 3人이 일본정부의 和平工作을 담은 密書를 蔣介石총통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해왔다』는 말을 전했다。3명이 일본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괴뢰정부인「南京정부」와 접촉한뒤 重慶으로 가 蔣총통을 만나 和平교섭을 해달라는 얘기였다。

난 즉석에서 「미은밥 먹고 식은소리 하지말라」고 화를 벌컥냈다。그러고는 그에게 『정확적으로 蔣총통이 만나줄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겐 임시정부가 있고 광복군이 있다。그짓을 한다면 송사감이다。곧 해방될테니 꼼짝말고 기다리란』고 말했다。民世는 2주일뒤 다시 찾아왔으나 같은말로 단호하게 거절했다。

民世는 싱거운 소리를 가끔 잘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때는 어떤 압력을 받고 그런말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해방된지 얼마안돼 우리집에서 假稱 大韓國民黨을 발起했다。張德秀、金度演、任永信、나、그리고 나의아내 異恩惠등이 그 발기인이었다。이자리에서는 李承晩박사를 귀국시키는 준비작업이 검토됐고내가 그 주된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때 古下가 苑西洞집으로 와 달라는연락을해왔다。우리는거기서 全國민대표자대회 準備委를 조직했다。나에게 외교부차장이 돼달라고 해 응낙을 했다。古下를 주축으로 白寬洙、張德秀、徐相日、金俊淵、張澤相등 나중에 韓國民主黨을 창당한 主役들이 그때의 멤버였다。해외에서 독립운동을한 대선배들이 들어오기 전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된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견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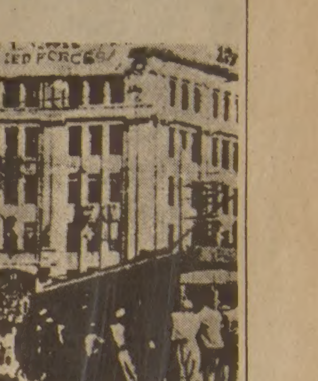
해방후 가장 먼저 뛰어다닌 사람은 夢陽 呂運亨이었다。그는 재빠르게 建國準備委員會를 만들어 機先을 잡더니 해방1개월뒤에는 朴憲永、許憲、李康國등 공산세력에 업혀 소위「朝鮮人民共和國」에 가담한다。

朴憲永등 공산파는 9월14일 경기여고 (現昌德여고) 대강당에서 人民共和國을 조직하고 주석 李承晩、부주석 呂運亨、국무총리 許憲등의 명단을 발표했다。그들은 귀국하지도 않은 李박사를 멋대로 주석에옹립했다。

이후 각종 정당、사회단체가 雨後竹筍처럼 생기고 각지에서 각종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세는 예측못할 혼란한 상황에 빠져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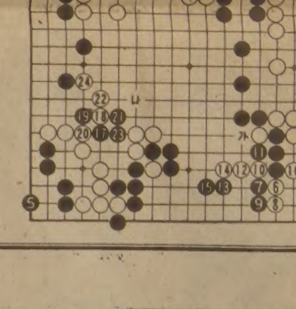
하지중장의 美軍은 9월에 들어와 軍政작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일본군들은 철수를 서둘렀다。일본인들은 한국인의 보복을 두려워했었으나 당시 우리는『저들은 만가지 죄를 지었지만 우리민족은 전통과는 다른모습을 보여주자』며 무사히 가도록 했다。총독부때 가장 악질적으로 굴던 일본놈들은 미리 다 내빼 뛰었다。

소련군은 美軍보다 앞서 北韓에 진주했다。당시 左派측은 소련군이 서울에 올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다。夢陽까지도 소련군이 서울에 들어온다며 마중을 나간다고 서울역에 군중을 선동해서 나갔다 허탕을 치게했다。


◇日帝의 敗亡은 이땅에 解放의 감격과함께 혼란의 소용돌이를 몰고왔다。사진은 해방을 기뻐하는 군중들이 鐘路 和信앞에서 전차에 매달려 타고 가고있다。

제⑬⑦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6譜 105～124 (각5시간 / 걸5집반)

白(5段)張秀英
黑(4段)鄭壽鉉



黑, 勝負手로 大混戰

黑은 전보에서 모처럼 이룩해놓은 우세한형세를 과격하게 두는바람에 다시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白쪽에서 말하면 黑의 좌하귀를 한껏 위협한 결과 黑5의 후수살음 강요한데서 다시금 우위를 되찾은 것이다。게다가 白6에 선착하게 되어서는 단연 우세한 판국인데 특히 白10은 멋진 수순이었다。

鄭4단은 여기서 적이 초조한표정。냉정히 생각했더라면 黑11로는 12자리에 잡아두어야 온건한데, 어쨌든 선수만은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섰던 모양이다。그렇지만 실전진행은 白16까지에서 黑이 역시 후수다。왜냐면 다음 白「가」로 뻗는날이면 11까지의 黑4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黑은 「가」로 잡아놓아야 되는것이다。

鄭4단은 그러나 여간해서 黑「가」를 두려하지 않았다。몇번인가 망설이다가 7분만에 좌하귀白에 黑17로 선제공격을 개시했다。하기야 黑우세에 놓인 黑으로서는 때이른 승부수라도 던지고 싶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해도 「가」의 곳을 등한히하고는 이마당에서는 역시 무리한 수단임이 분명해 보인다。

『黑17은 좌우간 「가」에 잡아버리는것이 정수。그래서 「계가바둑」으로 만들작전을 세우고 때를 기다려야한다』는 曺8단의 말인데 鄭4단은 진지하게 별 여유가 없었다。

8분만에 白18로 반격하며 이하 24까지 혼전이 시작되었다。그리고 여기서는 白「나」의 잠룡을 위요한 싸움이 불만한 대목이다。【一凡】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8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8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삼엽	주일 낮1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 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홍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 다운타운 밀크스토어
워싱톤과 새인크레어
☎ : 656-3020, 960-0761

FULL TIME가게헬퍼구함
남자분에 한함
☎ : 762-1572, 769-9854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윙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차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주말스토아 헬퍼구함
ALBION-RD.
☎ : 745-6330

주방헬퍼2명,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가게 헬퍼구함 : 풀타임(유경험자)및 주말에 일할분
돈밀 로드와 쉐퍼드지역(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491-9701

도나스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하실분
주중 : 오후3시~9시, 주말 : 오전8시~오후6시
영 스트릿과 칼리지 사이
598-1140

주중이나 주말에 스토아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헬퍼구함(여학생). 주말에는 풀타임 가능함
☎ : 463-6334 QUEEN E. 지역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③ 경리사원
(영어·타자 가능자)
☎ : 533-2361. MRS. LEE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 : 535-2798 233-9454

매매및 양도

건물및 비즈네스 매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500달러 이상
☎ : 535-7200 미스타 김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500달러
고등학교앞에 있음.
☎ : 533-0334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①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5.500)
②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3.500)
③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4.000)
황 순 일 ☎ : 481-3443, 745-5485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 536-0463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 : 252-7982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COUNTRY STYLE 도나스샾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벡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①관광지역에 위치하고 주유소를 겸용한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 TAKE-OUT 스토아 매매
2 베드룸 포함, 1.5에이커 크기 ASKING $89.000
②바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매매, 그로스 $440.000이상, 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3베드룸, 아파트+2 베드룸 아파트렌트 월 $215 우편취급에 대한 매상 년 $11.000 ASKING $219.000
③관광지역, 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3 베드룸 포함, 그로스 $300.000, 좋은 장비완비 되었음. ASKING $129.500
CALL : SALES REP. IRVEN(RED) DeGraw
☎ : (705) 325-6069
WALTER DEAN REAL ESTATE LTD.
107 MISSISSAGA ST. E. ORILLA
☎ : (705) 325-6193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 독신환영
HARBORD & CRAWFORD지역
☎ : 534-5327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전병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타일●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illegible]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8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미 용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휴일·월요일 휴업
848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6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림,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나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illegible]

"신선한 달걀을 원하는 고객을위해 가정배달을 시작했읍니다요" "거참 좋은데 … 한줄을 사겠소" "이 암탉 이름은 에드나입죠…。다음 월요일에 이닭하고 돈을 받아가지요" "우유는 이미 배달받고있는게 다행이야" 꼬꼬댁 꼬꼬댁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地球과학의 학습자료로 榮光차지
大統領賞 禹永云·金吉洵씨
=天地의 現象을 쉽게 이해=

◇대통령상 수상작「지구과학의 통합적 학습자료개발」과 수상자 金吉洵씨.

『예상밖의 큰 영광입니다. 그동안 지도해주신 많은분들 그리고 어려운 살림에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와 함께 이기쁨을 나누렵니다』

대통령상에 뽑힌 禹永云씨와 金吉洵씨의 수상소감이다. 禹·金씨팀이 3년간 연구끝에 완성한「지구과학의 통합적 학습자료개발」작품은 간단히 말해서 하늘과 땅위및 땅밑의 복잡한 자연현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한 학습교재이다.

지구과학은 天文·氣象·海洋등을 폭넓게 다루고있다. 그러나 이분야는 워낙 다뤄야할 규모가 방대한데다 현상이 복잡해서 지금까지 실험과 관찰교재가 별로 개발되어있지 않은상태이다.

禹·金씨팀은 이같이 방대한 지구과학분야중 별자리와 천체의 운동, 암석과 광물의 결정및 구조, 고·저기압의 발생과정등 천문과 기상및지질현상을 알기쉽게보여주는 간편한 실험장치를 개발한 것이다. 光州고교 선후배사이인 禹·金씨팀은 작품을 완성키위해 지난3월부터 7월까지 다섯달동안은 光州고교 실험실습실에서 연구에 몰두해왔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모두들 외로운 生 <194>

趙善作 作
禹慶熙 畫

灰色노우트 ㉚

[illegible]

CENTRAL AUTO-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 창 세

서울식품

BIG SALE
BIG SALE

한국. 미국으로부터 대량 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생선류

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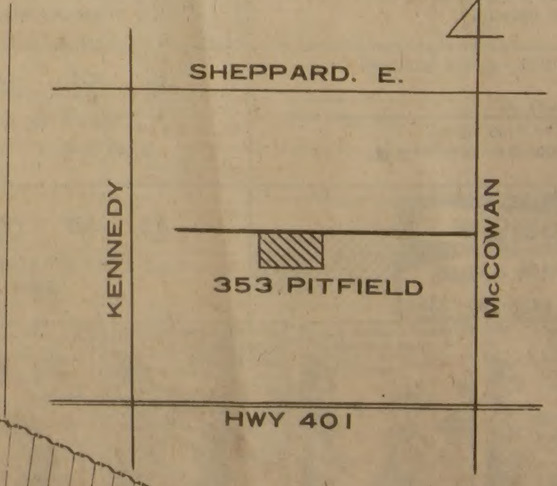
		REG.	SPECIAL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갈 비	Lb.	1.69	1.29(Box제한없음)
●소꼬리	Lb.	1.35	1.09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한국농장용 배 추 / 무 / 풋고추	} 농장가격으로그냥 서비스		
●명간장	1 gal		6.90
●양잠피	1 kg	2.25	1.80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청수냉면	1박스 2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오징어젓	Lb.		80¢ (특별가격)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어리굴젓	Lb.	4.90	2.90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쌀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세일할것임		
●삿보로라면		13.90	11.50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추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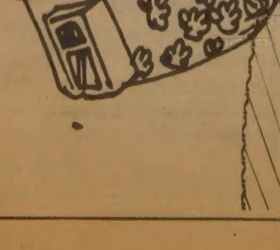
야채류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생활용품



서울식품

서 울 식 품

서울식품